

반도체 상장사 올 평균 11% 상승… “앞으로 더 오른다”

반도체기업 205곳 올평균 11% ↑
시총 1조 이상 10개사 상승률 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5% ‘최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이슈지속
‘빅사이클’ 전망에 저가매수 유효

국내 반도체 상장사가 올 들어 11% 안팎의 주가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승률보다 4%포인트(P) 웃돌지만 예상치에 못미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업 실적과 업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재료를 바탕으로 증시 주도입종으로 꾹혀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기업은 올해도 계속 주도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최근 주가가 잠시 주춤하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5社 11% 상승…시총 1조 이상은 18%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사 올해 주가 상승률〉 (단위 조원, %)

종목명	주요사업	시가총액	등락률
삼성전자	휴대폰, 컴퓨터, 반도체 부품	502.66	3.95
SK하이닉스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96.10	11.39
DB하이텍	반도체	2.88	27.25
원익IPS	반도체 제조용 기계	2.50	15.02
리노공업	전자부품, 반도체 소켓	2.39	16.03
솔브레인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화학재료	2.33	10.1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업용 에너지, 방산반도체 장비	2.25	55.78
티씨케이	반도체 제조 공정용 흡연제품	2.17	48.04
천보	디스플레이반도체 공정 소재	1.89	3.39
동진쎄미켐	반도체, LCD용재료	1.68	-10.54

17일 금융데이터 분석업체 딥서치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되는 양대 주식시장 상장사 205곳의 지난해 말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은 11%로 집계됐다. 무상감자를 통해 주식수가 976만8571주에서 325만6190주로 줄며 주가가 3배 오른 이엠네트웍스(옛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제외한 수치다.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전체 30% 수준인 62곳이었다.

한화그룹의 항공·방산 계열사로 산업용 에너지와 방산·반도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5.78% 치솟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티씨케이(48.04%), DB하이텍(27.25%), 리노공업(16.03%) 등이 그

시가총액 1조원 이상 10개사의 경우 평균 상승률이 18.05%에 달했다. 이 기간 코스피 상승률(7.31%)의 2.5배 수준이다.

한화그룹의 항공·방산 계열사로 산업용 에너지와 방산·반도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5.78% 치솟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티씨케이(48.04%), DB하이텍(27.25%), 리노공업(16.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95%, 11.39%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저가매수 유효”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반도체 업계의 수출 지표나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도 1분기를 기점으로 본격 회복할 것이란 분석이다.

노근장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자동차 반도체 공급부족이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완성차 회사들이 가동률을 조절할 정도로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반도체 공급부족이 2차 빅 사이클을 견인할 서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최근 반도체 기업 주가 하락을 매수기회로 활용하라”고 권했다. 반도체 ‘빅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 속에 저가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정책적 호재도 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을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소식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 설 연휴 동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비트코인 급등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으로 5.05%나 급등했다”며 “국내 증시도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생산을 지원받기 위해 보조금과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증설에 나서면 국내 반도체 기업도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올해 반도체 투자 증가폭은 앞으로 더 상향될 가능성 이 크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롯데건설,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동맹’

부동산 투자·개발 전략적 업무협약

롯데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르엘 갤러리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롯데건설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시공자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롯데건설이 민간으로부터 수주해 시공하는 사업장과 투자자로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투자자로 검토 및 참여가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안정적인 사업 구도 및 재원 확보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사업 초기 발생하는 토지 확보 및 각종 사업 비용에 대해 조합 보유 자금 등을 출자해 수익을 창출한다.

더불어 롯데건설이 투자자 및 시공자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오른쪽)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김수보 이사장과 르엘 갤러리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1.2조 투입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노후 공공임대 4.5만여 가구

내달 초 발주 6월 착공 계획

LH가 오는 3월부터 2년 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 5000여가구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시공 ▲고효율 LED 조명 및 콘텐싱 보일러, 복합환기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

업은 ▲세대통합 리모델링 ▲단일세대 리모델링 등 건설임대 대상 사업과 다가구 등 매입임대 시설개선 사업으로 나뉘며 이번 사업은 건설임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연접한 소형

주택(26m²) 2세대의 비내력벽 철거를 통해 보다 넓은 주택(52m²) 1세대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단일 세대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 영구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저감 기술과 친환경 자재를 적용한 리모델링 후 대학생, 주거약자 등 1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그린리모델링 2개년 사업 통합 발주계획을 수립해 ‘21년 사업 물량(1만8000여 호)을 포함한 1조1900억원 규모, 4만5000여가구에 대한 사업을 오는 3월 초 발주하고 6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발주는 지역별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각 권역별 발주 금액은 1000억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에 따른 입찰 참가 방법, 평가 방식 등은 3월 초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KB자산운용, KB코리아뉴딜펀드 2000억 돌파

한달 만에 두배… 올 수익률 11.2%

KB자산운용의 대표 뉴딜펀드인 ‘KB코리아뉴딜펀드’가 순자산 2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순자산 1000억원을 넘어선 후 한 달만에 운용규모를 두 배 늘렸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11.2%로 액티브펀드 평균수익률을 5%포인트 이상 크게 웃돈다.

KB자산운용은 17일 “단기간에 급성장한 가장 큰 요인은 뛰어난 운용성과에 있다”며 “최근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5G, 교육인프라 등 디지털 뉴딜 기업과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2차 전지기업 등 그린 뉴딜기업에 분산 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운용보고서 기준으로 투자비중이 높은 10개 종목은 삼성전자(10.85%), LG화학(8.38%), 카카오(7.86%), 천보(5.02%), 씨에스윈드(4.08%), 한화솔루션, SK하이닉스, 씨에스베어링, 현대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으로 일반 액티브펀드와는 투자종목이 차별화된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코스피 종목의 비중은 70%, 코스닥은 30% 내외로 유지하며,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고르게 투자해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심효섭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상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친환경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산업분석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 분석을 통해 뉴 노멀 트렌드와 정책 효과가 맞물린 고성장 기업을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KB자산운용은 뉴딜정책 관련지수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인 KBSTAR FnK-뉴딜디지털플러스ETF 등을 운용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비대면 제휴계좌 ‘CU+삼성증권통장’ 선봬

삼성증권-BGF리테일 협업

삼성증권이 BGF리테일과 비대면 제휴계좌 서비스 ‘CU+삼성증권통장’을 출시했다.

CU+삼성증권통장은 CU편의점 고객을 위한 전용 앱 ‘포켓CU’에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완료 시 삼성증권의 수시입출금식 CMA RP형(약정수익형) 계좌와 주식 및 금융상품 매매가 가능한 종합계좌와 동시에 생성된다.

이 계좌로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할 경우 매월 투자금액의 1%씩 월 최대 5만 CU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렇게 쌓인 CU포인트는 전국 1만 5천여 개 CU편의점 어디서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월 최대5만원 #1%적립 #제휴통장

CMA RP형(약정수익형)/종합계좌 동시개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통장 개설 선착순 5천명에게 CU모바일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는 오는 이벤트를 3월말까지 진행한다. 금번 제휴통장 출시를 계기로 삼성증권과 BGF리테일 양사는 금융과 유통을 융복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공동으로 발굴해 고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